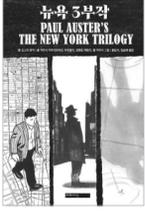


그래픽 노블로 폴 오스터를 추억하다

뉴욕 3부작

폴 오스터 지음
데이비드 마추켈리 등 그림



지난해 세상을 떠난 폴 오스터는 한국인이 사랑한 작가 중 한 명이다. '달의 궁전', '공중 곡에서', '뺑 굽는 타자기' 등 소설과 에세이를 아우르는 그의 저작들은 많은 인기를 얻었다.

폴 오스터의 1주기를 맞아 대표작인 '뉴욕 3부작'이 그래픽 노블로 출간됐다. 탐정 소설의 형식을 차용한 세 편의 연작 소설인 '뉴욕 3부작' 속 주인공은 다른 누군가를 감시하고 뒤쫓으며 사건 해결에 나서지만 점점 미궁에 빠져든다.

이번 그래픽 노블은 '같이면서도 다른 작품'으로 읽힌다. 각색을 맡은 폴 카라식의 해석과 데이비드 마추켈리, 로렌초 마토티, 폴 카라식이 각자의 시각으로 그려낸 그림은 생소하면서도 흥미롭다. 첫 번째 소설 '유리의 도시'는 지난 1994년 그래픽 노블로 출판된 적이 있었으며 이번에 나머지 두 작품이 더해져 '완전판'이 나왔다.

'베트벤:이여 윈' 등을 작업한 데이비드 마추켈리가 그린 '유리의 도시'는 "그 일은 잘못 걸려 온 전화로 시작되었다"는 문장으로 시작된다. 사설탐정을 주인공으로 하는 일련의 탐정 소설을 쓰는 작가인 윈은 어느 날 한통의 전화를 받는다. 그를 탐정으로 착각한 피터 스틸먼의 아내로부터 받은 의뢰는 피터의 아버지를 감시해 달라는 것. 대학 종교학과 교수였던 그는 아내의 불행한 죽음 뒤 아들을 9년이나 독방에 감금한 후 언어 사용을 금지시키고 학대하는 인물이다.

'뉴욕' 등의 표지 작업에 참여한 이탈리아 작가 로렌초 마토티가 그림을 맡은 '유령들'은 화이트에게 고

용돼 블랙이라는 이름의 남자를 쫓아다니며 지켜보는 일을 맡은 블루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블랙만 보며 살아온 블루는 "전에는 한 번도 떠올린 적 없는 생각을 하고, 단순히 타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자기 자신도 바라보는 것만 같다"고 생각한다. 다른 두 편과 달리 텍스트의 분량이 많아 삽화가 그려진 소설을 읽는 기분이 드는 작품으로 길은 음영과 그로테스크한 그림체가 인상적이다.

폴 카라식이 그림까지 맡은 마지막 소설 '잡혀 있는 방'은 가장 가까운 친구가 사라진 뒤 그의 방대한 문학 작품들을 관리하게 된 한 작가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친구의 아내로부터 부탁을 받고 작품 정리를 맡은 주인공은 친구의 작품을 통해 '그의 아내'와 연결된다. 책 말미에는 폴 오스터의 친구이자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소재로 한 만화 '쥐'로 폴리처상을 수상한 아트 슈피겔만의 추천사가 실렸다.

미국의 문학평론지 '커커즈'는 이 작품에 대해 "세 명의 주인공의 광기 어린 스토리와 재능 있는 세 명의 예술가가 만난 엄청난 작품! 마추켈리의 선명하고 자신감



그래픽 노블로 출간된 폴 오스터의 '뉴욕 3부작'.



<미메시스 제공>

넘치는 대사, 마토티의 화려한 음영, 카라식의 창의적인 그림이 살아 있다"고 평했다.

이 그래픽 노블을 읽고 나면 원작 소설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진다. 소설에서 그래픽 노블로, 다시 소설로 이어지는 여정이다.

한편 폴 오스터의 책을 꾸준히 펴낸 열린책들은 이번에 그의 생애 마지막 작품인 '바움가트너'도 함께 출간했다. 주인공은 10년 전 아내를 잃은 후 상실감을 안고 살아가는 노교수 사이 비움가트너. 발표된 적이 없던 아내의 글과 집필중인 그의 원고와 엮이며 이야기가 펼쳐진다.

<미메시스·2만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21세기 가장 중요한 작가들의 생생한 목소리

소설을 쓸 때

내가 생각하는 것들

애덤 비일스 지음, 정혜윤 옮김



세계적으로 유명한 서점이 있다. 이곳은 제인스 조이스를 비롯해 어니스트 헤밍웨이, 에즈라 파운드, 폴 발레리 등 당대 거장들이 드나들었던 곳이다. 바로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 세계의 문인들과 예술가들이 가장 사랑하는 서점으로 정평이나 있을 만큼 역사를 자랑하고 있다.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가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이색적인 작업을 진행했다. 바로 '작가와 대화'를 진행한 것. 작가의 내밀한 일상에서부터 창작을 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 밖에 독자들이 궁금

해 할 만한 내용 등을 인터뷰했다.

최근 발간된 '소설을 쓸 때 내가 생각하는 것들'은 책과 연관된 공간에서 전하는 동시대 작가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았다. 지필을 하고 엮어내는 영국의 작가이자 번역가인 애덤 비일스다. 파리에 거주하며 창작을 펼치는 저자는 문화적 상징 공간이자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이 사랑하는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의 디렉터로도 활동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진행한 인터뷰 가운데 최고의 대화만을 엄선한 책답게 쟁쟁한 작가들이 등장한다.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아니 에르노를 비롯해 폴리처상 수상 작가 폴스 화이트헤드, 공쿠르상을 받은 레일라 슬리마니, 맨부커상을 빛나는 말린 제인스 등 문학과 예술 전 세계 독자들의 이목을 끌었던 작가들이 망라돼 있다.

인터뷰는 픽션을 다루는 정통 작가들 외에도 제프 다이어, 올리비아 랭 등 논픽션 작가들의 목소리도 담고 있어 작가들 사유와 창작에 관한 개성적인 관점 등을

읽을 수 있다.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를 쓴 폴스 화이트헤드는 소설의 모티브를 떠올린 건 17년 전이다. 작가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았고, 바로 실행하면 그 아이디어를 망칠 것이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기다리기로 했어요"라고 말한다. 어떤 소재에 접하면 바로 집필에 돌입하는 작가들도 있지만 대개는 오랜 기간 '숙성'의 시간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작가는 글감, 소재를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어야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창작하는 동안 미로에 갇혀 해매는 과정을 반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각각의 작가들이 털어놓는 주요 질문에 대한 통찰, 진지하면서도 유머러스한 답변들은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는 독자들의 지적 욕구를 자극한다. 때로는 창작의 고독과 고독, 슬럼프에 관한 이야기는 작가들도 보통의 사람들 못지않은 시련에 내던져져 있음을 보여준다.

<미메시스·1만98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

새로 나온 책

▲균은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 가는가 (조너선 케네디 지음, 조현욱 옮김)=“정복자들이 중남미를 정복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총이나 쇠가 아니라 균이었다.” 균의 관점에서 다시 쓴 인간의 역사.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문명을 약화시켰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문명이 태어나고 번성하기도 했다. 유전학, 경제학, 역사 등 다양한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균이 끼친 깊은 영향을 탐구한다. <아카넷·2만3800원>

▲바꿀 수 없는 것에 인생을 소모하지 마라(알베르트 키츨러 지음, 최지수 옮김)= '평정심의 철학자'로 불리는 루키우스 안나우스 세네카의 가르침을 독일 철학자 알베르트 키츨러가 전한다. 스토아학파의 대표 사상가이자 황제 네로의 스승으로 알려진 세네카는 내면의 평온을 위해 실천을 무엇보다 중시한다. 빠르고 혼란스러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책은 흔들림 없이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길을 안내한다. <웅진지식하우스·1만9000원>

▲어느 겨울 다섯 번의 화요일(릴리 킹 지음, 박경희 옮김)=복잡하고 섬세한 인간의 마음을 담백하게 풀어낸 릴리 킹의 첫 소설집. 사랑하면서도 감정에 서투른 이들의 관계가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펼쳐진다. 이후 후 홀로 딸을 키우며 동료에게 끌리

어린이·청소년 책



▲친구(김성미 지음)=“사자는 이제 나보다 너구리가 더 좋은 걸까?”, “여우는 이제 나보다 원숭이가 더 좋은 걸까?” 사이 좋던 단짝 여우와 사자 사이에 작은 오해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점점 서먹해진다. 동화는 여우와 사자의 오해, 갈등, 그리고 화해의 과정을 통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관계의 고민을 유쾌하고 따뜻하게 풀어낸다. <책읽는곰·1만5000원>

▲검지의 힘(이선주 지음)=평범한 고등학생 하지에게 어느 날 갑자기 검지만 유독 강해지는 능력이 생긴다. 최고를 상징하는 엄지나 다른 손가락도 아닌, 하필 검지. 일상을 이어가던 하지의 눈에 교실 안에서 은밀히 벌어지는 괴롭힘이 들어오고,



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거나, 대학 시절 짝사랑했던 동성 친구와의 재회에서 느끼는 혼란... 답답한 이야기 속에 가장 인간적이고 보편적인 감정, 익숙한 외로움이 조용히 스며든다. <문학동네·1만7000원>

▲붓다의 신화(동명 지음)=고통과 욕망이 밀려드는 삶 속에서 마음의 중심을 잡아 줄 이야기. 붓다의 일대기를 '신화(神話)'로 풀어내며 깨달음의 의미를 되짚는다. 천신과 마왕, 수많은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 영웅 붓다. 그의 신화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그가 탐구한 삶의 본질에 한 발 다가서게 될 것이다. <불광출판사·2만원>

어린이·청소년 책

과거 비슷한 상황에서 나치지 못했던 자신을 떠올린다. 이번에는 용기를 내기로 결심한 하지. 그 순간, 검지는 진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돌베개·1만5000원>

▲작고 아름다운 고갱의 미술수업(김미진 지음, 폴 고갱 그림)=현대미술의 선구자 고갱의 예술 이야기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한 편의 동화로 풀어냈다. 고갱이 남태평양의 작은 섬 타히티에서 보낸 2년간의 시간을 담은 자전적 기록 '노아노아'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타히티의 아름다운 풍경, 고갱의 예술 작품이 어우러져 어린이 독자들이 마치 여행을 떠나듯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열림원어린이·1만6000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룩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룩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